

# 서울 시민들, 강진 수국 6000송이 나눈다



코로나로 판로 막힌 화훼농가 돕기  
21~25일 봄꽃 나눔행사 열고 구매  
장미 등 온라인 판매도 잇따라 완판

서울시민들이 강진 수국 6000송이를 나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름하는 강진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나눔이다.

21일 강진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전남 마을 공동체는 코로나19로 멀어진 이웃간 거리를 봄꽃으로 연결하는 '나와 너-우리, 봄꽃 나눔' 행사를 연다.

꽃 수출길이 막힌 강진 화훼농가의 수국 6000송이를 서울시민들이 구매해 한 송이는 코로나19로 지친 나에게, 다른 한 송이는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다. 구매한 꽃은 직접 가족·친구들과 나눠도 되고, 나눔할 봄꽃을 모아 병원·치료센터·복지관·주민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기관에 전달해도 된다.

봄꽃 나눔 행사는 21~25일 온라인(<http://bitly.kr/Flower2020>)으로 진행된다. 수국 2송이 가격은 1만원이다.

수국은 수많은 작은 꽃들이 모여 탐스러운 송이를 이룬다. 하얀색, 하늘색, 붉은색, 보라색, 자주색 등으로 색깔이 다양하다.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잔잔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강진 수국은 일본으로 수출할 정도로 때가이 곱기로 유명하다. 17농가가 5ha를 가꾸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고 각종 축제·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로가 끊겨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진군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수국·장미 등을 온라인에서 직거래로 팔아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 1차 수국 온라인 판매가 진행됐다. 수국의 가격을 평년 한 송이 1만원에서 3000원으로 70% 내리자 주문이 밀려들었다. 온라인 판매값은 택배비를 포함해 4송이 상자 1만5000원, 8송이 상자 2만8000원 등이었다. 이 중 택배비 4000원은 강진군이 지원했다. 1차분 2만6000송이는 주문



수국 농장을 방문한 이승욱 강진군수가 화훼 농업인과 판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4500건이 밀려들며 나흘 만에 모두 팔렸다. 이어 지난 17일 2차분 수국 1만송이를 온라인에 내놔다. 신선한 수국을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주문 2200여건이 밀려들었다. 새벽 0시에 시작된 온라인 판매는 10여시간 만에 완판됐다.

김양석 그린화훼법인 대표는 "전국 최초로 생화를 택배 발송해 직거래 판매했다. 2만6000송이가

온라인 직거래로 팔렸다. 수국 대중화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됐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은 기후가 좋아 장미·수국·작약·모란 등 꽃들이 잘 자란다. 코로나19로 생화의 판로를 찾지 못한 농가한테 직거래를 알선하고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국의 3차 판매와 작약 온라인 판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이 봉산면 옛 마을회관에 1000만원을 들여 '청년농업인 문화쉼터'를 조성했다.

## 청년농업인 문화쉼터 생겼다 담양군, 봉산면에 첫 조성

담양군은 지난 18일 봉산면에 '청년농업인 문화쉼터'를 처음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문화쉼터는 위라벨을 꿈꾸는 청년농업인의 생활주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에서 문화시설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소통 장소다. 옛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보수해 당구대 등 여가활동을 위한 기자재를 들여놓는 등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총 1000만원을 들여 조성된 봉산면 청년농업인 문화쉼터에는 110여명의 와우말기 작목반과 봉산말기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회원, 마을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문화쉼터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방치된 건물을 재활용해 쉼터를 조성한 것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나주 빛가람공원텃밭 개장...3평의 행복 일궈요

도시농부 350여명 참여

나주혁신도시 내 도시농부들이 지난 주말 처음으로 공원텃밭을 일궈냈다.

지난 18일 텃밭 분양자와 가족, 운영단체 관계자 등 350여명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원과 유휴부지에 마련된 텃밭 4곳에서 호미와 모종삽을 들었다. 코로나19로 도시농부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가족과 행복을 가꿀 3평 텃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나주시는 텃밭 분양자들에게 채소 모종(당조고추, 오이고추, 방울토마토, 상추)과 호미, 모종삽을 보급했다. 초보 농부들의 원활한 텃밭 농사를 위해 텃밭 가이드북도 배포했다.

나주시는 올해 공원텃밭 4곳을 분양했다. 제1텃밭(빛가람동 536) 197구획, 제2텃밭(빛가람동

831) 50구획, 제4텃밭(빛가람동 22-1) 61구획 등 총 308구획 중 276구획이 분양됐다.

나머지 32개 구획(1텃밭)은 한전KDN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시험연구 텃밭으로 운영한다. 도시농업형 스마트팜 10구획 분양자는 5월초 온라인을 통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3텃밭(빛가람동 864) 40구획은 미처 분양받지 못한 시민과 아이들이 다양한 농작물을 함께 가꾸는 '공영체험텃밭'으로 활용한다.

나주시는 개장 전 텃밭 토양분석 결과에 따라 친환경농자재를 활용한 토양 개량 작업을 통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양질의 토양 환경을 구축했다. 또 토양 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닐 멀칭 대신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멀칭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공원텃밭은 폐장 예정일인 오는 12월10일까지 운영된다.



나주시가 지난 18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4개 공원텃밭을 개장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관계자는 "5-9월에 실시하는 초보농부교실을 비롯한 어린이 수확체험, 텃밭 작물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텃밭이 시민의 건강한 여

가 생활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son@kwangju.co.kr

##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 화순군 30일까지 사용 당부

화순군이 농가에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교환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서 도열병·흰잎마름병·애벌구 등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이다. 육묘상자처리제를 사용하면 향후 농약의 살포 횟수와 사용량을 줄여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억5000만원을 들여 일반 재배농가(신청면적 3500ha)에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신청 면적에 따라 금액이 명시된 교환권을 농가에 지급했다.

농가는 육묘상자처리제와 화순지역 소재 농약 판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교환권을 사용하면 된다. 교환권 사용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쌀 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 육성 새 소득작목 애플수박 다음달 본격 출하

함평군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애플수박(사진)이 다음달 초부터 본격 출하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재배를 통해 첫 출하했던 함평산 애플수박이 올해는 다음달 초부터 7농가 1.7ha에서 일제히 수확작업에 들어간다.

기존 수박의 4분의 1 크기인 애플수박(900g~1.5kg)은 보통시설하우스 내에 터널처럼 덩굴을 뻗어 공중에 열매가 달리는 방식으로 재배한다.

크기가 작고 한 주당 3~4개 수확할 정도로 수량이 많지 않지만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최근 웰빙 간편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져 농가소득 향상의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애플수박 하우스 1동(661㎡)당 소득은 일반 수박보다 높은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함평에서 올해 처음 애플수박을 재배한 이정호 씨는 "지난해까지 주로 단호박을 재배했는데 생산성과 소득 측면에서는 확실히 애플수박이 더 좋은 것 같다"며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재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애플수박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배면적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창간68주년  
**광주일보**

엘로우 시티  
Jangseong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 엘로우시티 장성